

프라이부르크의 지속 가능한 이동수단

자전거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한 일일 프로그램



1960 년도부터 프라이부르크시의 가장 큰 정책목표 중 하나는 자동차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적 이동 수단을 제공입니다.

결과적으로 오늘날 프라이부르크는 지속적 교통기획 방면에서 국제적인 본보기로 인정받고 있으며, 70% 이상의 도로가 도보, 자전거 또는 대중교통을 위해 이용되고 있습니다.

공식파트너:

GREENCITY
FREIBURG

- 지속 가능한 도시 정책과 환경친화적 이동 수단에 관한 소개 강연.
- 이동 수단 및 보행자 구간 개발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는 프라이부르크 구시가지 투어.
- 프라이부르크 신축 기차역과 자전거 보관소 (Radstation) 방문.
- 레스토랑에서 점심식사.
- 11,000명 이상이 거주하는 신도시 리젤펠드 (Rieselfeld) 방문.
리젤펠드는 트램 및 파크 앤 라이드* (Park & Ride) 시스템과 더불어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친화적인 환경을 갖춘 프라이부르크 내 가장 큰 주거지역 중 하나입니다.
- 혁신적인 교통정책으로 인해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있는 보봉 (Vauban) 지역 투어.

소요시간: 약 8시간

참가인원: 최대 25 명

이동수단: 보행 및 트램, 혹은 자전거.

요금: 950유로

(대학관계자: 795 유로)

포함 사항: 강연자, 강의실, 기획

불포함 사항: 교통비, 점심식사

